



건설업계 현안 신속하게 처리

건설정책연구원 '현안업무 대응팀' 구성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이 건설경기 악화 및 급변하는 환경에서 업계의 주요 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안업무 대응팀'을 구성, 현안 대응 능력강화를 추진한다.

노재화 원장은 "건설경기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에 연구원이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Needs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원내에 '현안업무 대응팀'을 구축하고 업계 주요 현안 대응능력 강화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안업무 대응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현안업무 대응팀'과 '전문건설공제조합 현안업무 대응팀'으로 운영되며, 현안 이슈에

대해 연구원과 협회, 조합의 신속한 연계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현안업무 대응팀'은 이미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회의 '장기공사 하자보증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쳤으며, 현재 서울시회의 '종합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전문건설 공사비 확보방안'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효성 확보방안',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계약보증의 실손보상 정당성 확보방안' 등 4건의 현안과제를 접수하고 대응연구에 착수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계가 경기 악화에 따라 외부위기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연구원의 현안 대응능력 강화방안 추진으로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